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추가 자료)

- IMF: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것
-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 →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 야기 →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 초래 위험성 우려
 - **R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

한국의 경제동향

- 한은: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11월 전망치 대비 0.4%p 하향)'
- 현대경제연구소: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7%(9월 전망치 대비 0.5%p 하향)'

트럼프 2기 주요 내용

- 경제, 통상, 환경, 물가안정, 에너지, 이민, 정부 혁신 등 선거 공약에서 강조했던 분야와 거의 일치
- **해로운 행정명령과 조치에 대한 철회**
 - 바이든 행정부의 총 78개 법안 또는 조치에 대한 철회
 - 인프라 투자법, IRA 에너지 인프라 관련 조항, 청정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 등과 관련해 발표했던 행정 명령 철회 조치
 - 파리기후협약, WHO 탈퇴
- 중국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와 같은 파급력 높은 조치
-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 USMCA 재협상, 301조 추가 관세 검토, 철강/알루미늄 수입조치, 수출 통제 시스템 검토
- 전기차 의무화 폐지

중요 행정명령

1. 해로운 행정명령과 조치 철회: IRA 폐지 등
2. 채용 중지: 공무원 추가 채용 중지
3.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 주의: 파리협정 탈퇴
4. WHO 탈퇴
5. 미국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언: 불법 이민 막기, 미국 이민법 강화(불법 입국자 추방)
6.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7. 미국의 에너지 해방
8.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
9. 국경 강화, 급진적 환경주의 반대, 사형제 부활과 공공안전 보호
10. 극단적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여성 보호, 불필요한 급진적 DEI 프로그램 및 차별 폐지
 - DEI(다양성 제약), 생물학적 성별을 두 가지만 인정

글로벌 트렌드(현대경제 연구원)

1. 계산의 시간

- 트럼프는 1기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
- 트럼프는 미국이 경제, 군사적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회복 의지를 드러냄


- **경제적 패권 강화**
- **군사적 패권 유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
- **국제질서 재편:** 양자 관계 중심 접근 선호

• **주요 대외정책 기조**

| 구분 | 트럼프 1기 | 트럼프 2기 예상 |
|----|--------------------------------|----------------------|
| 외교 |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경제 중심 양자 외교 선호 | 심화 및 제한적 다자협력 및 동맹활용 |
| 군사 | 인-태 전략 강화, 국방비 증액 기조 | 동일 |
| 경제 |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 강력한 보호 무역 강조 | 기술 패권 집중 |
| 미중 | 대립, 경쟁(무역 전쟁 및 기술, 안보 갈등 전면화) | 전면적 대립 경쟁 |

- 2기 외교에서는 1기와 유사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더욱 강경한 접근 방식 택할 가능성 높음
 - 2기에서는 정책 집행의 속도, 강도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 예상(**2년 뒤 중간 선거**)
- 국방, 안보 분야에서 NATO와 같은 기존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압박(GDP 5% 수준)하는 한편, 군사적 옵션을 동원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할 것
 - 동맹국의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켜 미국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 유럽, 동아시아 전역에 배치된 군사적 자원을 재분배 → 효율성 높이기
 - **버터와 대포의 관계**
- 유럽과 중동에 산적한 분쟁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남게 될 가능성
 -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은 약소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이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도전에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향(예상)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검토
-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신속한 휴전 추진
- 유럽 국가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 요구 가능
- 이스라엘에 강력한 지지 표명, 아브라함협정 정비
- 하마스와 이란을 연계시켜 對이란 제재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란의 시리아 내 영향력을 견제하며, 시리아 新정부와의 외교 관계 정립 가능성
- ISIS 잔존 세력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보다 지역 동맹국 전가할 수 있음
- 거래주의적 성향**
 - 대만에 대한 방어 지원 강화와 무기 판매 지속 +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
 -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음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강화
-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체계 강화 및 중국 군사력 견제
- 최대 압박 정책 재개, 기존 제재 집행 강화 및 추가 경제 제재 도입
-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활용은 지양. 외교적, 경제적 또는 비군사적 조치 강구
-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역내 영향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가능성

2.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관세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인을 제공함으로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에도 큰 피해를 유발할 전망
-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 전망 →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트럼프 1기에서 "중국 관세인상 → 무역 수지 적자 축소"와 "공급망 정책 → FDI 유입 규모 확대"라는 성과
 - 무역 수지 적자 규모: 736달러 축소
 - FDI 유입 규모: 4조 달러(2017) → 4.6조달러(2020)
- 즉, 보조금 안주고 관세 조정으로 무역 수지, FDI를 개선했다고 말함 But 총수출/총수입은 감소
- 1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무차별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와 타 분야 정책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 큼
 - 상호무역법 제정, 보편관세 도입
- 19세기말 관세전쟁 → 무역 감소, 물가 급등 → 상호 경제적 피해 유발 → 세계적인 불황 장기화 유발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 관세 부과 →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와 수입제한, 환율 통제 유발 → 대공황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스무트-홀리 관세법

1929년부터 약 10년 간 이어진 대공황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미국이 불황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이 법을 제정함. 이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보복에 나섰으며 미국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수출에서 큰 피해를 봄. 관세 보복의 악순환 속에 전세계 무역 규모는 1929년과 1934년 사이 3분의 1 토막이 났음. 기업이 도산하고 미국 실업률은 25%, 독일 실업률은 42%로 히틀러의 나치집권을 초래했고 이는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음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높은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
- **보편관세**: 모든 국가에 일괄적 적용 관세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 >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상호무역법 (Reciprocal Trade A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상대국의 對 미국산 제품 관세가 미국보다 높다면 보복관세 부과 • 공화당은 통상정책 강령에 따라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 |
| ② 보편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 및 무역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관세 부과 • 트럼프 2기 경제팀 매월 2~5%씩 점진적 인상 방침 표명 |
| ③ 對 중국 관세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관세율 60% 또는 그 이상) • 공화당은 對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 필수품(자동차 포함) 수입 단계적 폐지 주장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테무, 쉬인, 알리바바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액 면세한도(800달러) 폐지 가능성 •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한 중국제품 우회 수출 경로 차단 |
| ④ 무역협정 재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있어서의 원산지 규정 강화 재협상은 2026년 • 한·미 FTA는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와 광범위한 재협상 가능성 |

자료 : 언론 등 각종 보도자료 종합.

3.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American Economic Exceptionalism)의 시대

- 세계 경제 둔화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한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 개념이 재부각
 - 미국의 경제적 독주로 경기 차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에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 높음
 - **경제적 예외주의**: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는 구분되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뜻
- 2024년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기록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2.8% 성장률을 기록(선진국 1 ~ 3%)
- 실물 경제 측면에서 내수가 강한 성장세 유지 & 금융 시장에서도 주요 지표의 강세가 지속 중인 상황
 - 개인소비지출, 민간투자 등 강한 내수에 힘입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지속
 - 강달러, 주식시장 호조 등 금융 시장에서도 미국의 독주가 관찰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미국 경기 호조 지속 + 경제 격차 더욱 확대될 전망
 - 신자유주의(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설명되는 바,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4. 다시 시작된 부채질

- 주요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재상승할 가능성 확대
-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신흥국 중심으로 가계 및 기업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
- 이에 감소하였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신흥국 중심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 확대 상황
-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세는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큼
 - 트럼프발 고금리 강달러 현상에서
 - 신흥국이 \$로 돈 빌림 → 달러 표시 부채 부담 30% 급등
 - 신흥국 중심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표시 부채가 리스케줄링(새무상환 연기)이 어려워짐
 - 2018년 첫다운됐던 당시 신흥국 부도 위험 최고
- 통화 정책은 통상 '긴축 - 적정 긴축 - 안정적 - 적정 완화 - **완화**' 다섯 단계로 이행
- 완화 정책 사용 → 대출 활성화 → **금리 하락 유도(대출 증가)**
- 그러면 왜 **현재 금리 인하 정책?**
 - 미국 관세 부과 → 미국은 높은 관세로 수입 감소, 수입 대체를 위해 미국 내 생산 증가 → 다른 나라는 미국으로 수출 감소, 수출 감소 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 유지 →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해야 함**

5. 새로운 패권경쟁, AI

- AI는 윤리,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패권경쟁 이슈로 부상
- 향후, 글로벌 AI 시장은 물론 주요 인프라(데이터 센터)의 비용 또한 빠르게 확대될 전망

국내 트렌드

3. 인내하는 소비자들

- 경기 회복세가 지연 → 현재의 불황기를 견디기 위해 소비를 참는 소비자 증가
 - 소비를 참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시기로 전환(올로 → 요노)
 - 필수재 중심 소비가 이어질 전망
 - 가전제품 및 오락, 취미, 경기 용품의 소매판매 감소세가 두드러짐
- 경기 회복세 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 수준, 실질임금 정체 등 소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거이 지속된 영향
 -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임금에 비해 물가 상승이 높음**)
-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도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이어질 전망
 -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지속 전망 등으로 소비심리도 악화
 - 소비자 심리지수: 88.4p(24.12) → 95.20p(25.02)